

'93. 12月

〈國內〉

상공자원부는 내년초 25~26개 품목을 수입선 다변화 품목에서 제외, 日本産의 수입을 자유화할 방침이다.

현행 수입선 다변화제도는 경쟁력이 약한 품목을 보호하는 반면 장기적으로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있는 것을 비롯 한·일 경제협력 증진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오는 98년까지 규제품목을 절반정도로 축소할 계획이며 우선 내년도에는 기존 지정품목 258개중 10%인 25~26개를 지정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편 수입이 규제되는 품목은 기계류가 118개, 전자 및 전기제품이 61개, 섬유생활용품이 57개 등이다.

〈獨逸〉

독일의 지멘스가 발전부문에서 러시아에 진출한다.

지멘스의 발전부문 KWU가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급증이 예상되며 러시아 합작으로 설립한 회사명은 '인터오트 마티카'로 현지의 연구기관 무역공단 등인데 지멘스의 출자비율은 31%이다.

〈日本〉

일본의 유력전기 메이커들이 잇달아 중국에 진출하고 있다.

엔고, 대응은 물론 성장이 예상되는 중국시장에 매력을 느끼는 일본기업과 기술제휴, 합작사업을 통해 일본기술을 흡수하려는 중국측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國內〉

상공자원부는 '93년도 첨단생산시스템 개발사업을 확정, 초정밀 조립기술 등 37개 과제개발에 정부지원 87억원 등 지난해의 54억보다 3배이상인 169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 사업에는 총괄 주관기관인 생산기술 연구원의 생산시스템 개발센터를 비롯 차세대가공시스템은 세일중공업, 첨단전자제품 조립, 검사시스템 등은 삼성항공 등 총 53개업체 및 대학·연구소 등이 참여한다.

〈日本〉

일본 자원에너지청은 기력 및 가스터빈 발전설비의 정기검사중 지정검사기관의 검사 대상을 1만 kW미만에서 3만kW정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通産省은 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정기검사의 완화, 전력회사에 열병합으로 생산하는 잉여전력의 구입의무화, 열병합발전의 비상용 전원으로 인정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종합효율 70%정도의 디젤가스엔진, 가스엔진, 가스터빈 3종류에 의한 열병합 발전설비의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美國〉

미국의 Noise Cancellation Technologies Inc(NCT)는 15~20개 전력회사와 Consortium을 형성하여 개발비용 500백만\$을 분담하여 변압기 소음방지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Consortium에 참여하는 전력회사는 이설비 구입시에 할인혜택

을 받게 될 것이며 이 소음 방지설비는 재래식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보다 25%의 경비가 절감되며 북미지역의 잠재적인 시장은 20억~30억\$에 이른다고 한다.

〈國內〉

공진청은 '94년도 품질조사 대상품목을 폴리에틸렌관 이음새 등 총 568개 품목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조사품목 330개보다 238개 품목이 증가한 것으로서 소비자들의 불량상품 구입에 따른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품목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美國〉

연간수요 77억\$ 상당으로 추산되는 미국시장에서의 소형전기모터에 대한 수요는 자동차산업의 발전과 함께 증대하고 있으며 주로 Auto-window, Auto-lock, Sun-roof 개폐장치 및 안테나 상하조정 장치에 주로 사용되는 소형전기모터의 지난해 수요는 13억\$이었으며 95년도에는 16억\$로 연간수요 77억\$ 규모중 3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美國의 풍력발전 사업이 재개돼 오는 2020년에는 미국 전체 에너지 용량의 10%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美國〉

미국의 풍력발전 사업은 새로운 기술개발과 환경영향에 대한 관심증가와 아울러 발전단가의 하락에 따라 지난해 한해동안 2억9백만불의 풍력 발전설비를 판매했는데 이는 예년에 비해 월등히 증가된 판매 수준이다.

<대 만>

대만정부는 최근 향후 10년간 신규로 필요한 발전용량인 1만1천 7백 50MW의 약 절반 정도에 대해 국제경쟁 입찰을 통해 민간부문의 참여를 허용키로 결정했다.

대만전력공사는 향후 10년간 석탄 및 천연가스, 석유를 연료로 하는 1천2백만MW급 화력발전소 10기와 2천MW의 수력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급증하는 전력수요의 충족을 위해 원자력을 제외한 발전용량을 현재의 1만9천 2백50MW에서 오는 2002년까지는 최소한 3만1천MW로 증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미얀마>

미얀마는 88년 시장경제 체제 전환이후 민간의 건축붐 및 군사정부의 對國民 경제건설 실적 과시를 위해 건축, 건설에 투자되는 예산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전선의 수요도 급증 추세이다.

특히 미얀마의 전력시설 확대 및 노후 송배전 전선 교체를 위해 92/93회계 연도부터 95/96회계 연도까지 4개년 동안 총 3억 6,600만弗의 투자가 정부의 4개년 경제개발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전선의 수요는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전동공구류시장이 울들어 전반적인 침체로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 시장은 현재 수입품이 90%를 점하고 있는데 독일이 뛰어난

고객서비스를 내세워 최대공급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20개 생산업체가 있는데 이중 4개업체가 전체생산의 50%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대부분업체들이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기 보다는 몇개 품목을 전문화, 생산제품 가운데 상당량을 해외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國 內>

정부는 출연(연) 보유기술 무상양허 2차과제로 69개 과제를 선정했다.

지난 6월 1백 26개 과제를 선정, 현재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1차사업에 이어 실시되는 이번 2차사업은 1차사업 실시결과 중소기업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돼 전문분야별 소위원회, 중소기업기술지원 위원회 및 총괄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것이다.

이번 2차사업의 규모는 70개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기술지원 사업비 13억 6천만원(정부 6억 8천만원) 기술개발 자금융자 지원 요청 94억원, 시설·운전자금 융자 지원요청 1백 40억원이다.

<國 內>

재무부는 예산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해 '94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을 정부 등 공공기관이 구매할 경우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단체수의 계약 방법으로만 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3월부터는 ▲ 단체수의 계약 ▲ 중소기업자만의 제한경쟁 ▲ 지명경쟁입찰중 발주관서가 선택하여 집행할 수 있게 된다.

<中 國>

중구 북동부, 북부·중부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중국의 3대 전력공급그룹이 2000년대를 향한 설비 확장 계획을 완료했다.

각 그룹별로 보면 북동부전력그룹은 지난해 말 2,500만kW에서 2천년에 총 4,700만kW로 2010년까지는 8,800만kW로 확대할 예정이며, 북부전력그룹은 2천년까지 3,550만kW의 설비능력을 갖춘 17개의 신규 석탄열발전소를 건설할 계획.

중부전력그룹은 금세기말까지 전력설비능력을 약 5천만kW까지 확장, 7년에 걸쳐 10개의 수력발전소와 30개의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國 內>

정부는 내년 관세율 인하에 따른 관세收入 감소를 고려해 수입물품에 대한 關稅減免率을 축소키로 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첨단산업 및 방위산업용 시설재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 축소를 관세법 개정에 이미 반영했으며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 외국항해 선박·항공기 제조용 원료품 ▲ 오염방지 및 폐기물 재활용품 등의 관세감면폭 축소를 명시키로 했다.

<日 本>

히타치 제작소가 중국에 화력발전시스템 생산을 위해 합자회사를

94. 1月

설립한다. 새로 설립된 회사는 '히타치 華勝控制系統有限公司', 자본금 160억 \$로 히타치가 40%, 중국측이 60%를 각각 출자하며 CPU 보드를 일본에 도입, 히타치 최신시스템을 생산할 예정으로 오는 97년 연간 6억엔 정도의 매출을 계획하고 있다.

〈日 本〉

일본의 마쓰시다 전공은 해외에서 계전기를 대폭 증산기로 했다. 현재는 미국, 태국의 자회사에서 월간 총 7백만개의 릴레이를 생산하고 있는데 94년중 약 90% 늘린 1천3백만개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中 國〉

중국정부는 GATT가입을 겨냥, 94. 1. 1부터 機電產品輸入官史暫定處理法을 시행, 기계전기설비에 대한 대폭적인 수입제한 품목 삭감조치를 단행했으며 '93. 12. 31자로 2,898품목에 대해 8.8%의 관세인하를 실시. 총 수입액의 43.3%에 해당하는 544억 4천만달러를 기계전기설비가 차지했으며 수입선은 일본·미국·독일·대만의 순으로 많았다.

〈國 內〉

상공자원부는 금년에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 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대상물품을 101개 업종별 협동조합이 관장하고 있는 가구류, 피복류, 통신기기류 등 496개로 지정했다.

상공부에 따르면 금년도 단체수의 계약물품은 지정조합수가 작년

보다 200개사가 많은 7,300개사, 예상계약액은 2천억원이 많은 2조 8천억원에 달하나 지정물품수는 작년의 518개보다 22개가 줄었다.

〈日 本〉

일본工營은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수력발전소 건설프로젝트의 시공관리를 수주했다.

수마트라島 남부에 있는 2개의 하천을 터널로 연결, 高低差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사업으로 완성후에 석유채굴거점인 파렐반市에 전력을 공급하기로 했다.

아시아개발은행에 의한 자금지원프로젝트로 2001년에 완성될 예정인데 총사업비는 약 4백 25억엔으로 이중 동사의 수주액은 약 25억엔이다.

〈日 本〉

일본의 日新電機는 협력회사를 포함하여 副材의 해외조달을 확대하기로 했다.

동사가 수입업무를 대행하고 협력회사가 재가공, 日新電機에 납품기로 했다.

저렴한 부재의 조달로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인데 조달규모를 3년후에는 55억엔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달확대에 따라 교토시내의 본사에 국제구매과를 신설하고 태국, 대만의 생산자회사에도 구매담당자를 곧 두기로 했다.

알루미늄포일과 강관등의 소재와 차단기 등 배전반용제품, 컴퓨터주변기기 등의 완성품은 歐美에서, 주물 주단조품 등의 부품은 동남아시아에서 조달하기로 했다.

〈國 內〉

상공지원부가 1월 5일부터 시행키로 한 '대외무역관리규정중 개정고시'에 따르면 국제입찰은 관련단체나 상공자원부의 승인없이 마음대로 참가할 수 있으며, 무역업등록없이 수출할 수 있는 금액범위가 종전 1만달러 이하에서 2만달러 이하로 상향조정됐다.

이에 비해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규제가 대폭 강화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불허와 함께 벌금형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日 本〉

일본 전기업계의 중전기기 생산실적이 악화되고 있다. 일본전기공업회가 최근 집계한 중전기기의 작년 10월 생산실적은 3,198억8,400만엔으로 전년동월비 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일러 및 원동기를 제외한 회전전기기계, 정지전기기계기구, 그리고 폐쇄제어장치·개폐기기의 종합계 생산실적은 2,850억5,400만엔으로 전년동월비 8.9% 감소했다. 회전전기기계는 839억8,800만엔(12.9% 감소)으로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정지전기기계기구는 663억9천만엔(4.9% 감소)으로 이중 주력제품인 변압기가 227억2천만엔(6.0% 감소)에 그쳤다. 전력변환장치는 206억1,800만엔(10.2% 증가)으로 두자리수 증가했으며 개폐제어장치·개폐기기는 합계 1,346억7,600만엔으로 8.1% 감소했다.

〈中 國〉

중국정부는 올해 텔리커뮤니케

이선분야에 전년비 34%증가한 536억원(61억6천만달러)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한 투자의 대부분은 외국으로부터의 차관 및 기술을 도입하여 금세기말까지는 광대한 중국에 1억회선 이상의 프로그램 컨트롤, 디지털방식에 의한 현대적인 통신네트워크를 완성시킬 방침이다.

중국의 통신산업 성장률은 지난해 58.9%를 기록했는데 이 업계의 지난 9년간 평균성장률은 중국의 경제성장을 훨씬 웃도는 속도로 성장해 왔으며 8차5개년계획(91-95년)기간중에 22개의 주요 광섬유케이블라인을 계획, 현재 일부는 사용중에 있으며 14개 위성지상국도 완성해 놓고 있다.

〈國 內〉

공업진흥청은 국내 수출업체들이 외국의 각종 기술장벽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 해 업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중 해외공관 등 정부정보망과 무역협회, 무역진흥공사 등 유관기관 및 종합상사 해외정보망, 국내 수출검사기관 및 수출업체등의 국내정보망을 통해 수출지역별, 상품별로 각종 규제내용을 광범위하게 수집할 계획이다.

〈러시아연방〉

러시아연방 규격위원회(GOST-R)는 올 1월 1일부터 수입상품에 대한 강제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으나 작년말 강제인증대상 품목을 일부 확대하고 외국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요건을 강화하

며 자국 인증기관만이 인증업무를 전담키로 하는 등 주요 정책방향을 변경, 4~6개월간 연기하기로 했다.

〈印 度〉

인도는 오는 97년까지 신-재생 에너지에서 2천MW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다.

에너지 관련기관인 IRED에 따르면 3년내에 풍력, 태양과 수력으로부터 2천MW의 전기를 생산할 것이며 지난해 3월까지의 인도 전체 전력생산량은 7만kW이상이었지만 향후 4년동안 3만 6천6백45MW가 더 요구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中 東〉

중동의 전력수요는 빠른 속도로 증가, 15개 중동국가들은 2000년까지 6백억달러에 달하는 발전소, 건설프로젝트를 세워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금세기에 총 4백50억달러에 이르는 발전장비등을 수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사우디는 약 2백50억\$를 투자 발전소, 변전소를 건설할 예정이다.

〈日 本〉

일본의 마쓰시타전기공업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소형 2차전지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바탐島에서 복수의 니켈 카드뮴(니카드)전지를 1개로 모든 팩가공을 하고 있으나 동남아시아에 전지자체의 생산거점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개시했다.

일본의 전기메이커 각사가 잇달아 이 지역에 생산이전을 추진하

고 있는데 대응, 2차전지의 제품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바탐島의 현지법인은 마쓰시타 전기산업과 공동출자에 의한 아시아松下배터리로 현지의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 니카드전지를 팩가공하여 동남아시아의 일본계 전기통신기기메이커 등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생산규모는 36만팩이었다.

94. 2월

〈國 內〉

전량 미국에서 수입되던 초고압 전선보호용 복합재료 파이프가 국내에서 개발됐다.

한국기계연구원은 동양산업개발과 공동으로 1년간의 연구끝에 발전소에서 나오는 345KV이상의 고압전선을 땅속에 묻거나 지상에 설치할때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복합재료파이프(일명 트러프)를 개발, 상품화했다.

이제까지는 한전이 일본의 아사히 글라스社로부터 연간 100억원 규모를 수입해 왔으며 개발된 제품은 수입제품의 단가인 100만원 대의 절반이하로 공급이 가능, 국산대체는 물론 수출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

최근 유럽각국들은 풍력발전소의 건설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덴마크에서는 가장 활발한 개발을 추진해 현재 4천여개의 풍차가 소모하는 전력소비량만도 총 전력의 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덴마크는 단위용량 최소 10kW에서 최고 5백50kW까지의 풍력발전소 설비용량을 4백50MW를 보유하고 있는데, 부지확보 문제가 향후 풍력발전의 최대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현재 운영중인 단위용량을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世界〉

제너럴일렉트릭(GE)의 금융회사인 GE캐피탈과 세계적인 투자신탁그룹인 퀴텀투자기금은 개발도상국의 민간발전소 건설사업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회사인 「글로벌전력투자기금」을 설립키로 했으며 일차적으로 2억달러씩 투자하며 국제금융공사(IFC)가 5천만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예정이다.

GE캐피탈과 퀴텀측은 초기 기금규모를 25억달러로 늘릴 예정이며 일단 발전소 건설에 착수하면 기금규모가 1백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國內〉

상공부에 따르면 올해 최대 전력수요는 지난해보다 12.7%가 증가한 2,446만KW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령·삼천포 발전소 등 8개 발전소 245만KW를 전력성수기인 여름철이전까지 준공하고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열병합 발전소 15개소 24만KW를 활용키로 했다.

또한 올해 전력공급능력을 지난해의 2,463만5천KW보다 11.7%가 증가한 2,752만2천KW로 확충, 전력공급예비율이 12.5%(93년 13.5%) 이상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필리핀〉

필리핀은 만성적인 전력부족을 해결하고 오는 2천년까지 에너지수입 의존도를 30%까지 감축시키는 에너지계획을 검토중에 있다.

전력부족은 특히 주대륙인 루손섬에서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가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11월부터 전력수요가 2백MW증가하여 공급부족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필리핀 정부는 전력공급을 증대시키기 위해 전력산업의 부분적인 민영화를 추진키로 하고 이 민영화에는 외국의 투자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또 발전능력을 현재의 1만MW에서 2천년까지 1만6천MW까지 늘리고 이 가운데 약 2천MW는 지열발전, 나머지는 주로 석탄발전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國內〉

상공자원부는 유망중소기업중 기술력 향상에 주력하는 업체를 조속히 세계일류 기술수준까지 육성키 위해 올해 약 200개사를 '유망선진기술기업'으로 지정, 종합적인 기술지도와 함께 정책자금 우대지원등 각종 지원책을 펼 계획이다.

상공부에 따르면 지난 83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는 유망중소기업제도와 지난 9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기술선진화 업체 지정제도의 운영효율화를 위해 올해부터 이들 제도를 본격적으로 통합운영키로 하고 기술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유망선진기술기업 선정은 종전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하던 것을 유망 중소기업중에서만

선정키로 했다.

〈베트남〉

베트남의 94년도 예상 電力생산량은 150억KWh로 예년보다 30억KWh가 늘어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에너지부에 따르면 올해 최소한 4개의 발전시설이 가동에 들어가므로 전력생산이 20% 늘어나는 반면 산업생산 증가율은 15%로 전력사정이 호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남부지역의 고질적인 전력공급부족현상은 베트남 정부가 Tra An발전소와 北·南 送電線 건설사업에 집중투자, 화력발전소 건설에 투자할 여력이 없었고 또 乾期때 수력발전소 저수량에 따라 전력공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日本〉

東京電力·關西電力등 일본의 전력회사들은 자재조달·공사발주와 관련, 1社에 대해서만 견적서를 제출케 하는 특명발주를 줄이고 대신 경쟁입찰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30~40%에 그치고 있는 각사의 경쟁입찰 비중은 50%로 확대될 전망이다.

일본 전력회사들의 경쟁입찰비중 확대 결정은 공공공사 입찰·정부자재조달과 관련, 해외국가들의 투명성 향상요구에 대응하고 발주 경쟁확대로 코스트 삭감을 도모, 전력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며 연간 5조엔과 설비투자의 10%를 점하고 있는 전력업체의 설비투자의 적용을 받을 예정이다.

〈國 內〉

정부는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 등 각종기술개발자금의 신규지원 대상이 되는 금년도 기술개발과제 454개를 선정, 이들 과제에 대해 금년중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 487억원과 산업은행의 생산기술개발자금 620억원등 정책자금으로, 1,107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상공자원부가 공고한 '생산기술발전 5개년계획 및 94년도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에' 따르면 카오스칩 개발등 250개 기술개발과제에 대해 총개발비의 3분의 2까지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을 출연지원하고 자동차용 세라믹 엔진밸브 개발등 24개 과제에 대해 산업은행 생산기술개발자금을 100%까지 융자지원키로 했다.

〈日 本〉

92년이후 2년연속 전년실적을 밑돌던 일본내 전기공업생산액이 올해는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일본의 電波新聞이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전기업체의 93년중 생산액은 28조8,555억 엔으로 전년비 5.9%나 감소했다. 이에 앞서 92년엔 전년비 10.8% 감소, 93년까지 2년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그리고 4년연속 30조엔대를 밑돌았다.

〈國 內〉

정부는 우리나라 주요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업종별로 전략기술과제를 선정, 자체기술개발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 美國·日本·러시

아·中國등과의 기술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산업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지원을 6,4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업의 기술개발노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상공자원부의 산업기술정책 기능 및 조직을 대폭 확대 보장하며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수출업체지원을 위해 금년도 수출물품에 대해 적용할 간이 정액환급대상을 1,196개 품목에서 올해 1,341개로 대폭 확대, 2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관세청은 지난해 간이 정액 환급대상 1,196개 품목 가운데 개별 환급 실적이 전혀없는 127개 품목을 빼고 새로 272개 품목을 추가했다.

〈國 內〉

공진청은 한국품질인증센터에 이어 두번째로 생산기술연구원 부설 품질평가 센터를 국제품질보증체제(KS9000/ISO9000)전기전자분야 인증기관으로 승인했다.

생산기술연구원은 지난 2년여에 걸쳐 SAQAS, QMI 등 선진 외국인증기관에 심사원을 파견, 국제심사원을 양성 확보하고 품질인증기관 운영을 위한 노하우를 전수받는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인증기관이 되기 위해 준비해 왔다.

생기원은 공진청의 이번 인증기관 지정에 따라 우선 전기전자분야의 인증을 실시하며 오는 4월까지 인증분야를 일반기계, 수송기계, 화학 및 화공분야까지 확대

할 계획이다.

〈英 國〉

영국의 톨스로이스그룹과 말레이시아의 EPE 파우어사가 동남아시아 전력송출기기 시장을 겨냥, 합작사를 설립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레이틀-EPE社로 명명된 합작사는 톨스로이스 자회사인 濠洲의 레이틀사가 생산한 고효율 전력 송출기기를 도입,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등지에 판매할 계획이다.

〈日 本〉

일본의 日新전기는 대만에서 受變電機器를 생산키로 했다.

가스컨덴서와 가스식·절연개폐장치(GIS)를 9월부터 생산, 대부분을 일본과 동남아시아에 수출하기로 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종래의 油式 절연개폐장치에서 안전한 가스식에의 대체수요가 예상되고 있는데 대응하려는 것으로 일본내 생산은 고전압형으로 특화하고 대만을 범용 GIS 공급기지로 삼기로 했다.

대만의 생산거점은 현지중전메이커인 亞力전기와의 합작회사 日亞電機인데 자본금은 2억원으로 日新이 68%, 나머지를 亞力이 출자, 91년10월에 설립했다.

〈日 本〉

일본의 마쓰시타전기산업은 화란의 종합전기 대규모회사 필립스社와 폴란드에 건전지생산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내년중 생산을 개시, 건전지의 거대한 잠재수요가 있는 동구권에 출하할 계획이다.